

總主編 朴興鎮
副總主編 崔文植

中國廿六史及明清實錄

東亞三國關係史料全輯

(第一輯)

zhong guo
nian liu shi ji ming qing
shi lu dong ya san guo
guan xi shi liao quan ji



延邊大學出版社

201313
1

總主編 朴興鎮
副總主編 崔文植

中國廿六史及明清實錄

東亞三國關係史料全輯

(第一輯)



延邊大學出版社

《中國廿六史及明清實錄東亞三國關係史料全輯》

編纂委員會

總主編：朴興鎮 延邊大學 教授

副總主編：崔文植 延邊大學 教授

編委：（按漢字姓氏筆劃為序）

刁書仁 揚州大學 教授

王崇時 北華大學 教授

朴燦奎 延邊大學 教授

李治亭 吉林省社會科學院 研究員

李宗勳 延邊大學 教授

李德山 東北師範大學 教授

車今順 延邊大學 副教授

金憲淑 遼東學院 副教授

姜龍範 延邊大學 教授

祝立業 吉林省社會科學院研究員

張傑 遼寧大學 教授

張佳生 遼寧省民族研究所 研究員

張鶴泉 吉林大學 教授

鄭永振 延邊大學 教授

《中國廿六史及明清實錄東亞三國關係史料全輯》

統編室人員

主任：崔文植（兼）

副主任：車今順（兼）

成員：姜鮮男 耿志剛

崔青龍 金洪素

前言

東北亞地區一向被稱為東方民族走廊。自古以來，這一地區乃是諸多民族繁衍生息的搖籃，不同民族文化相互交匯的歷史大舞臺。在其漫長的文明發展進程中，逐漸形成了中國、朝鮮、日本的東亞國際關係格局。中、朝、日三國在歷史的進程中，各自創造了獨具特色的燦爛文明，為人類的發展、文明的進步，作出了不可磨滅的貢獻。從歷史發展的視角考察東亞三國的關係，就會發現與世界其他國家和地區的不同，表現出它們自身的特點。首先，在地緣上，中國與朝鮮山水相連，形同一體；中國與日本一衣帶水；朝鮮與日本隔海相望。其次，在文化上，同受儒家的傳統思想文化薰陶，同屬於儒學文化圈。再次，更重要的是，三國交往歷史悠久，至遠至深。中國早在先秦時期便開始與朝鮮半島有來往，尤其是在戰國後期，大量的燕國、齊國百姓不斷遷入朝鮮半島定居。中日兩國的關係，可以追溯到秦朝初期。其後，兩國關係的紀錄，皆載於中國史籍中。至於朝日關係，雖晚於中朝關係，但兩國也有悠久的交往歷史。歷史證明，東亞三國的關係悠久而深厚，豐富而複雜。三國在文化上相互借鑒、相互影響，長久積累而形成了穩固的傳統友好關係。

應當指出的是，東亞三國在數千年的相互交往中，和平相處、友好交往，構成了三國關係的主流。但也毋庸諱言，在特定的歷史條件下，三國之間也曾出現過對峙和抗爭，甚至發生過戰爭。尤其是近代，率先迅速崛起的日本帝國主義，對中國和朝鮮多次發動了大規模的侵略戰爭，給兩國人民造成了深重的災難。但不久，隨著日本帝國主義的投降，三國關係又進入了新的和平交往與發展時期。二戰後，由於朝鮮半島的南北分裂，改變了原來的中朝日“三角關係”，形成了中、朝、韓、日“四角關係”這一格局。進入二十一世紀以來，已經走上改革開放與和平發展道路的中國顯示出蓬勃發展的強勁勢頭，韓國與日本在科技上突飛猛進，朝鮮奮起直追。綜觀當今之世，四國之合力，無論在國際經濟、政治還是文化的格局中，都是一支不容忽視的巨大力量。

二十一世紀初始，如何維護東北亞地區的持久和平，共築相互理解、合作交流、共同發展的和諧的良好環境，是擺在四國面前的一項戰略課題。以理解謀和諧，以和諧圖發展，以發展促文明，以文明創輝煌，乃為二十一世紀

東亞四國之共識。歷史證明，東亞三國（當今四國）各盡所誠，維護和平，避免衝突，擴大交往，密切合作，建立鞏固的共謀繁榮的良性互動關係，將是整個東亞及東北亞乃至世界和平與繁榮的基本保障之一。為此，開展對東亞三國（當今四國）關係史的研究，探討今後四國關係的美好前景，具有深遠的歷史意義和重要的學術價值。

中、朝、韓、日四國學術界在推進東亞及東北亞地區的和平與發展，加深其源遠流長的友好關係，構築緊密合作共同發展的和諧環境等方面，同樣負有不可推卸的歷史責任和人文使命。這就要求我們科學地闡釋悠久而複雜的東亞三國（當今四國）關係發展史，客觀地分析瞬息萬變的國際形勢，科學地預測東北亞地區的未來。繼承和發揚彼此間的傳統友誼關係，告誡人們應汲取歷史的經驗教訓，將對四國的發展有著不可估量的認知價值和指導意義。基於這一認識，我們本著“以史為鑒，共同發展”的原則，以中國正史《廿六史》和《明實錄》、《清實錄》為史料底本，從中全面梳理了有關東亞三國關係的原始史料；還從先秦文獻、金石文獻中輯錄出部分相關史料，最終得以編纂《中國廿六史及明清實錄東亞三國關係史料全輯》（以下簡稱“史料全輯”）。

到目前為止，國內公開出版的相關資料有：雲南省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與延邊大學古籍研究所合作編著的《清實錄朝鮮史料摘編》（吉林文史出版社，1986年）、原吉林師範學院古籍研究所編著的《二十六史中朝關係史料選編》（吉林文史出版社，1995年）、延邊大學朝鮮問題研究所編著的《中國正史中的朝鮮史料》（延邊大學出版社，1996年）；國外公開出版的相關資料有：韓國檀國大學附設東洋學研究所編著的《二十五史抄》（韓國檀國大學校出版部，1977年）。

《史料全輯》為韓國大韓劍道會原會長、諾基亞 TMC 原會長，現任大韓劍道會名譽會長、諾基亞 TMC 名譽會長的李梓旭先生全額資助，由延邊大學牽頭，協調組織吉林大學、東北師範大學、遼寧大學、揚州大學、北華大學、遼東學院、吉林省社會科學院、遼寧省民族研究所等九個單位的六十餘位專家學者共同整理編纂，延邊大學出版社承擔出版的大型史料全輯。《史料全輯》編纂委員會的主觀願望是要將“全面、客觀、翔實、豐富”的東亞三國關係史料奉獻給關注並從事東亞三國（當今四國）關係史研究領域的專家學者，作為其研究的基礎資料。《史料全輯》雖曰“全輯”，但我們在編纂過程中，因囿於文獻知識、整理水平，難免有遺漏或不當之處，敬請學界和學者們不吝賜教並加以指正。

歷經六年之久，在《史料全輯》即將出版之際，我們不得不由衷地說：如果沒有李梓旭先生在中韓文化交流事業方面的決策和全額資助、李種林先生的牽線搭橋及鼎力支援和韓國大韓劍道會所屬友好人士們的熱心關照，就不可能設想和實施《史料全輯》的編纂工程；如果沒有中華書局出具《作品許可使用授權書》，授權使用中華書局點校本《二十四史》和《清史稿》，就不可能順利地編纂出《史料全輯》；如果沒有參編單位領導所給予的大力支持、參編專家學者所發揮的真誠合作精神和所付出的辛勤勞動，就不可能編纂出“全面、客觀、翔實、豐富”的《史料全輯》；如果沒有延邊大學原校長朴文一教授對《史料全輯》的立項及編纂全過程所給予的殷切關注和細心指導，就不可能順利完成《史料全輯》的編纂任務；如果沒有延邊大學出版社出版工作人員的辛勤努力，就不可能出版這樣大型的《史料全輯》。謹此，向上述友好人士和單位、專家學者及參編人員、出版人員，致以誠摯的敬意和衷心的感謝！

此序。

朴興鎮

2007年3月

於延邊大學

머 리 말

예로부터 동북아지역은 동방민족의 주량이라고 지칭되어 왔는바 자고 이래 이 지역은 수많은 민족이 생성 소멸되며 번영 발전하여 온 삶의 요람이었으며 부동한 민족의 문화가 상호 교차 발전하여 온 크나큰 역사무대였다. 이 유구한 역사적 진전과 동북아 문명의 상생 발전 중에서 점차적으로 중국, 조선, 일본이 동아 국제 관계의 판도를 형성하였으며 중국과 조선 그리고 일본 이 삼국은 상기 역사적 진전 속에서 각자 독자적인 특색을 구비한 찬란한 문명을 창조함으로써 인류의 발전과 문명의 진보에 마멸 할 수 없는 기여를 하였다. 역사발전의 차원에서 동아삼국의 관계를 고찰하여 보면 세계 기타 국가와 지역의 관계와는 다른 자체적인 특점을 나타내고 있음을 쉽게 보아 낼 수 있다. 우선 지역적 연원에서 보면 중국과 조선은 산수로 인접되어 하나의 육지형체를 이루고 중국, 조선은 일본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다. 다음 문화적 연원에서 보면 상기 삼국은 전통적인 유가사상과 문화의 감화와 영향을 함께 받아 공동적으로 유학문화권에 종속되어 있다. 다음으로 더욱이 중요시 되는 것은 국제 관계사상 동아삼국의 상호 교류는 그 역사가 유구할 뿐만 아니라 다각적이었다는 것이다. 일찍 중국은 선진시기로부터 조선반도와 내왕을 시작하였고 더욱이 전국시대 후기 대량의 연나라, 제나라 주민들이 연속 부절히 조선반도로 천입하여 정착하였다. 중·일 두 나라의 내왕 관계 역시 진나라 초기로 소급하여 고찰 할 수 있으며 그후 두 나라 관계 관련 기록은 모두 중국의 역사전적에 기재되어 있다. 조·일 두 나라의 내왕 관계가 비록 중·조 두 나라의 내왕 관계보다 조금 늦게 시작되었지만 두 나라 간에도 역시 유구하고도 밀접한 내왕 사를 소지하고 있다. 역사가 증명하는 바와 같이 동아아시아삼국 관계 역사는 유구하고도 심후하며 풍부하고도 복잡한바 상기 빈번한 내왕 속에서 문화상 상호 흡수하고 상호 영향을 주며 장기적인 누적을 거쳐 온당하고도 견고한 전통적인 친선유대를 형성하였다.

마땅히 지적해야 할 것은 수천 년간 지속되어 온 동아삼국의 상호 내

왕 중 평화공존과 친선내왕이 삼국 관계의 주류를 구성하고 있지만 실사구시 적으로 말한다면 특정한 역사 조건에서 삼국 간에도 일찍 상호 대치와 항쟁의 관계 국면이 나타났으며 심지어는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더욱이 근대에 와서 선차적으로 켜기한 일본제국주의는 중국과 조선에 대한 여러 차례 대규모 전쟁을 발동하여 두 나라 인민들에게 막중한 재난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미구에 일본제국주의의 투항과 더불어 삼국 관계는 새로운 평화적 내왕과 발전의 시기로 진입하게 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조선반도의 북남 분열은 원래의 중·조·일 《3각관계》를 개변시키고 새로운 중·조·한·일 《4각관계》의 판도를 형성하였다. 21세기에 들어선 오늘, 개혁개방과 평화발전의 일로에 들어선 중국은 도약발전의 강대한 추세를 현시하고 한국과 일본의 과학기술은 거세찬 진척을 가져오고 있으며 조선 역시 분발하여 번영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국제적인 추세를 감안하여 보면 상기 4개국의 국력총합은 국제적인 경제, 정치, 문화의 무대에서 홀시 할 수 없는 한 갈래 거대한 역량으로 주목되고 있다.

21세기의 서막이 열린 오늘 어떻게 4개국 간의 장구한 평화를 수호하고 상호 이해하고 합작교류하며 공동 발전하는 화목한 동북아환경을 공동이 구축하는가 하는 이 과제는 4개국이 함께 노력하여 실현해야 할 전략적 목표인바 상호 간의 이해로써 화합을 도모하고 화합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하며 발전으로써 문명의 진전을 추진하고 이러한 문명으로써 휘황한 역사업적을 창조 하는 것이 21세기 동아시아 4개국의 공동한 소망임이 자명한 사실이다. 역사가 증명하는 바와 같이 동아시아 삼국(지금의 4개국)이 각자 성의를 다 하여 평화를 수호하고 충돌을 피면하며 교류를 확대하고 긴밀히 합작하며 공동으로 번영 발전하는 공고하고도 정상적인 상호 추동 관계를 건립하는 것은 동아시아지역 나아가서는 전반 동북아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이룩하는 하나의 기본적인 담보로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동아삼국(지금의 4개국) 관계사를 연구하고 향후 4개국 관계의 아름다운 미래를 탐구하는 과제는 심원한 역사적 의의와 중대한 학술적 가치를 함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동아시아지역 나아가서 동북아지역의 평화발전을 추진하고 긴밀하게 합작하며 공동으로 발전하는 화합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중·조·한·일 4개국 학술계에서 남에게 맡길 수 없는 역사적 책임과 인문적 사명으로 된다. 이는 우리들에게 유구하고 복잡한 동아삼국(지금의 4개국) 관계 발전사를 과학적으로 천명하고 피차간의 전통친선 관계를 계승

발양하며 마땅히 섭취하여야 할 역사적 경험과 교훈을 사람들에게 고지하고 변화무상한 현실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며 동북아지역의 미래를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4개국의 발전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인식적 가치와 지도적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인식의 차원에서 우리는 《역사를 거울로 삼고 공동으로 발전하자》라는 명제를 전제로 사료의 수집과 정리로부터 착수하여 우선 중국 정사 《26사》와 《명실록》, 《청실록》을 사료저본으로 동아시아삼국 관계 관련 소유의 원시 자료를 전부 절록하고 부분적 선진문헌과 금석문헌에서 관련 사료를 절록하여 최종 본 《중국 26사 및 명·청 실록 동아시아삼국 관계 사료전집》(이하 《사료전집》으로 간칭)을 편찬하게 되었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국내에서 공식 출판된 관련 자료로는 운남성사회과학원과 연변대학교 고적연구소에서 합작 편찬한 《청실록조선사료적편》(길림문사출판사, 1986년), 원 길림사범학원 고적연구소에서 편찬한 《26사중조관계사료선편》(길림문사출판사, 1995년), 연변대학교 조선문제연구소에서 편찬한 《중국정사중의 조선사료》(연변대학교출판사, 1996년)가 있으며, 국외에서 공식 출판된 관련 자료로는 한국 단국대학교 부설 동양연구소에서 편찬한 《25사초》(한국 단국대학교출판사, 1977년)가 있다.

본 《사료전집》은 한국 대한검도회 전임 회장, (주)노키아 TMC 전임 회장, 현임 대한검도회 명예회장, 현임 (주)노키아 TMC 명예회장이신 이재욱선생께서 소요 경비 전액을 후원하여주시고 연변대학교를 필두로 길림대학교, 동북사범대학교, 료녕대학교, 양주대학교, 북화대학교, 료동학원, 길림성사회과학원, 료녕성민족연구소 등 9개 단체, 60여명 전문가 학자들이 공동 합작하여 정리 편찬한, 연변대학교출판사에서 출판을 담당한 대형 사료집이다.

본 《사료전집》 편찬위원회의 주관적인 소망은 《전면적이고 객관적이며 상세하고 풍부》한 동아시아삼국 관계 사료를 동아시아삼국 관계사 연구에 관심을 갖고 또 그 연구에 투신한 전문가 학자들에게 해당 연구에 필요로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해주려는데 있었다. 그리고 본 《사료전집》을 《전집》이라고 명명하였지만 우리들의 문헌학수준과 정리전문성의 제한으로 전반 편찬과정 중 사료절록에서의 누락과 사료정리에서의 부당한 문제점들이 적지 않게 존재하리라 인정하면서 관련 학계와 학자들의 허심탄회한 지적과 가르침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6년여의 시간을 경유한 본 《사료전집》이 바야흐로 간행되는 시점에

서 우리는 진심으로 제언하는바, 만약 이재옥회장님의 중·한문화교류사업 관련 결책과 소요 경비 전액 후원, 이종림 부회장님의 적극적인 중계와 전폭적인 지지, 그리고 대한검도회 산하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배려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본 《사료전집》의 편찬사업을 구상하고 실시 할 수 있었으며, 만약 중화서국에서 《작품사용허가수권서》를 서명하여 중화서국 판 교정본 《24사》와 《청사고》를 이용하게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합리 합법적으로 본 《사료전집》을 편찬 할 수 있었으며, 만약 편찬에 참여한 단체지도자분들의 힘 있는 지지, 그리고 절록과 정리 편찬에 참여한 소유 전문가 학자들의 진정한 합작정신과 신근한 노동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전면적이고 객관적이며 상세하고 풍부》한 《사료전집》을 편찬 할 수 있었으며, 만약 연변대학교 전임 총장 박문일 교수님의 진지한 관심과 세심한 지도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본 《사료전집》을 순리롭게 편찬 할 수 있었으며, 만약 연변대학교출판사의 출판인원들의 신근한 노력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이런 대형《사료전집》을 출판 할 수 있었겠는가?! 이에 상기 우호 인사들과 단체, 전문가 학자들 그리고 사료의 절록 정리 편찬, 출판사업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되는 경의와 충심으로 되는 감사를 삼가 드리는 바이다.

박홍진

2007년3월

연변대학교에서

앞에 드리는 말

동아시아 지역 학술계에 전무사례인 《中國廿六史 및 明清實錄東亞三國關係史料全輯》이 이제 고고성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경사를 즈음하여 우선 규모가 방대한 책이 나오기까지 고생하신 중국의 여러 대학교와 연구단체의 학자분들과 연변대학교의 박흥진 총주필님 그리고 대한검도회 이종립 부회장님의 다함없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북아 지역의 역사를 회고하여 보면 수많은 민족이 상생 발전하여 오면서 유구하고도 찬란한 동북아 역사와 동북아 문명을 창조하여 왔으며 동아삼국 관계가 정립된 후 각자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재정비하면서 지속적이고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세계인들의 각광을 받는 동아삼국 관계사를 형성하였습니다. 이 동북아지역에 위치한 한국은 고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국, 일본과 경제, 정치, 문화, 종교, 예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지속적이고 활발한 교류가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까닭에 중국의 대표적인 사서를 중심 저본으로 선정하고 동아삼국 관계 사료를 전부 절록 편찬하여 방대한 사료집을 만들어 냄으로써 동아삼국 관계의 유구한 과거 역사를 재조명하고 변화무상한 현재 동아시아 국가관계를 재인식하며 미래지향적인 동아시아 국가관계의 장래를 구상해 보는 것은 아주 뜻이 깊은 거사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 정리된 동아삼국 《사료전집》은 많은 역사학자들과 관련 분야 전문가들에게 아주 적시적이고 장기적인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 믿어 이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문헌과 문장을 놓고 한분의 스승을 모시고 배운 학자들 간에도 그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다를 수 있는데 사회제도와 이념 그리고 학술인식이 각이한 나라의 학자들에게는 더욱이 큰 역사 인식상의 차이가 있을 것은 자명한 바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뿌리가 바뀌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자면 우리 학계에 중국의 대표적인 사서를 저본으로 한 동아삼국 관련 사료집이 필요시 되는 바 이제 출간되는 본 《사료전집》이 상기 동아삼국

관계 관련 학술연구에 가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주게 된다면 저로서는 더 없는 안위와 기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것을 짐작하고 심지어는 예상치 못했던 난국도 있으리라 우려되어 몇 번 주저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한국에서 발행된 《二十五史抄》가 있어 중복되지 않을가 하는 마음의 부담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AD 2000년 8월 연변대학교 방문시 박홍진 부총장님의 적극적인 협력 의지와 대한검도회 이종립 부회장님의 열성에 감동되어 이 일을 추진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후 필요한 준비단계를 거치고 실제 절록 편찬 작업을 경과하느라 시간은 많이 소요 되었지만 이제 500만자가 넘는 방대한 책자가 나오게 되었으니 동아삼국 관계를 연구하는 온 학계의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그간 본 《사료전집》의 출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과 헌신의 정열을 아끼지 않으신 훌륭한 학자 여러분들과 함께 참여하신 연구원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발간사를 대신합니다.

(사)大韓劍道會 名譽會長

李梓旭

(주)諾基亞 TMC 名譽會長

2007 년 3 월

寫在前面的話

值此在東亞地區學術界尚無先例的大型史料輯——《中國廿六史及明清實錄東亞三國關係史料全輯》(以下簡稱《史料全輯》)即將問世的喜慶之際,我謹向為編纂規模龐大的《史料全輯》而付出辛勤勞動的中國相關大學與研究單位的諸多學者和延邊大學的朴興鎮總主編、曾付出辛苦之力的大韓劍道會李種林副會長,一併致以真誠的感謝!

回顧東北亞地區的歷史,我們不難看出,歷史上諸多民族繁衍生息於此,共同創造了悠久的東北亞歷史和東北亞文明。形成東亞三國關係的格局以後,三國在不斷整理其各自傳統文化的同時,通過持續而活潑的相互交流,演繹了世界所矚目的東亞三國關係史。從古至今,位於東北亞地區的韓國,與中國和日本進行了包括經濟、政治、文化、宗教、藝術等幾近所有社會領域的持續而活潑的交流活動,相信今後也會呈現出更加欣欣向榮的局面。

我認為,選定以中國的代表性史書為底本,節錄編纂其所有三國關係史料,出版規模龐大的史料輯,並以其史料,歷史地說明東亞三國悠久的關係史,重新認識當前千變萬化的東亞國家關係,研究和實現未來的東亞國家關係前景,是一項非常有意義的活動。此外,節錄編纂東亞三國《史料全輯》,將給很多歷史學者和相關領域的專家提供及時而長久的幫助。為此,我們編纂出版了《史料全輯》。

拜一位老師而學習同樣的文獻或文章的學者之間,也難免有不同的理解和解釋。所以,生活在不同社會制度和具有不同的理念及學術觀點的各國學者之間,對歷史的認識存在或大或小的差異是自然而然的。但無論如何,歷史的淵源是不會改變的。因此,我們學術界需要以中國的代表性史書為底本,來收錄其東亞三國關係相關資料的史料。即將出版的《史料全輯》,如果能給東亞三國關係的相關學術研究提供有價值的資料,那我將十分高興!

平心而論,事前,我曾因可能發生的諸多難處,甚至出現預想不到的困難局面而猶豫過幾次。況且韓國已出版了《二十五史抄》,難免產生重複之嫌。但2000年8月,我訪問延邊大學時,被朴興鎮副校長積極的合作態度和李種林副會長的熱情所感動,而最終下了要促進本《史料全輯》編纂事業的決心。其

後，必要的準備和實際的節錄編纂工作歷時數年。即將出版的逾500萬字的規模龐大的《史料全輯》，這不可不謂研究東亞三國關係之整個學術界的大事！

在此，向為編纂出版《史料全輯》而付出獻身精神和辛勤勞動的優秀學者、參與本事業的研究人員以及相關單位的各位領導，再三致以深深的感謝！

(社)大韓劍道會 名譽會長

李梓旭

(株)諾基亞 TMC 名譽會長

2007年3月

출판축사

《中國廿六史 및 明清實錄東亞三國關係史料全輯》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사료전집》은 근 六年여의 시간이 걸린 쉽지 않은 작업 끝에 이루어진 성과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 간에 상호 협조로 성사된 기념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간에 있었던 역사적 교류는 근대로 내려오면서 호오시비를 떠나 그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삼국의 지정학적 숙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 유구하고 활발한 동아시아 삼국의 관계 역사 연구는 향후 효과적인 동아시아 국가지간의 상호 이해 합작 교류를 약속하는 중요한 학문적 과제라고 인정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학술분야에 귀중한 사료를 제공하여 줄 본 《사료전집》의 출판에 어찌 축하의 말씀을 아낄 수 있겠습니까?!

한국에서는 이미 중국의 정사 二十五史를 저본으로 한 《二十五史抄》라는 東亞三國 關係 관련 史料輯이 출판되었습니다. 이 사료집은 한국 학자들의 사관과 학술 인식에 따라 편찬된 것이라고 사례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중국에서 발간되는 《中國廿六史 및 明清實錄東亞三國關係史料全輯》은 중국학자들의 학문적 안목과 역사 인식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니 이 두 사료집이 동아시아 삼국 관계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쌍벽을 이루는 사료집으로 활용될 것이라 의심치 않습니다.

돌이켜 보면 이 《사료전집》의 성사는 전적으로 경제인으로서 문화사업에 지대한 관심과 열정을 지니신 이재욱회장님(본 사업을 시작할 당시 대한검도회 회장과 노키아 티엠씨 회장이었으며 현재는 상기 단체와 기업의 명예회장)의 올바른 역사 인식과 두터운 경제적 후원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박홍진 총주필님을 비롯한 중국 여러 대학교 및 연구단체 학자들과 관계 구성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풍성한 문화 결실입니다. 이에 이재욱회장님께 다함없는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박홍진 총주필님과 참여 학자분들의 노고에 진정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니다.

본인은 이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가교적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아무쪼록 이 《사료전집》이 동아삼국의 역사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여러 나라 연구자들에게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크게 활용되기를 바라마지 않으며 아울러 꼭 그렇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아울러 이와 같이 한·중 간 문화교류에 일조가 되고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는, 그리고 학문적 가치가 인정되는 효과적인 합작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본 《사료전집》의 편찬 출간 사업에 참가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축사에 대신합니다.

(사)大韓劍道會 副會長 李種林

2007년3월

出版祝詞

對《中國廿六史及明清實錄東亞三國關係史料全輯》(以下簡稱《史料全輯》)的公開出版,我表示衷心的祝賀!

《史料全輯》不僅是歷經六年多的歲月,傾注艱苦的勞動而得來的豐碩成果,也是韓國和中國之間相互合作而得以成功的事業,故可稱為韓中友好交往和文化合作交流中一項具有紀念意義的巨作。

從古代開始的韓國與中國、日本之間的歷史性交流,至近代以來,無論其好惡是非,交往領域日益增多。為此,我們不得不承認,此乃不以人們的意志為轉移的東亞三國各方面關係之必然。因而,對悠久而活躍的東亞三國關係史的研究,是保證今後東亞國家之間的有效相互瞭解和合作交流的重要學術課題。因此,向學術領域提供寶貴史料的《史料全輯》即將出版之際,怎能吝嗇賀喜之辭呢?

韓國已出版了以中國正史《二十五史》為底本的、署名為《二十五史抄》的東亞三國關係相關史料輯,而此史料輯是根據韓國學者的歷史觀與學術觀點而編纂的。但這次在中國出版的《史料全輯》是根據中國學者的歷史認識和學術眼光而編纂的。所以,我相信,上述兩部史料輯將形成寶貴的雙壁,被研究東亞三國關係的學者得以廣泛的利用。

回首《史料全輯》的編纂出版事業,是全靠作為經濟人對文化事業有著莫大關心和熱情的李梓旭會長(本事業開始之當時,曾任大韓劍道會會長、諾基亞 TMC 會長,現任上述團體和企業的名譽會長)的正確的歷史認知和雄厚的資助而得以成功的,也是靠以朴興鎮總主編為首的中國幾所大學與研究機構的領導和學者共同努力而得來的豐碩的文化成果。在此向尊敬的李梓旭會長致以真誠的敬意,同時,向朴興鎮總主編和參與編纂事業的全體學者所付出的辛勤勞動致以由衷的欽佩之意!

本人為本事業的成功起到過橋梁作用,但願《史料全輯》的學術價值,在學習和研究東亞三國歷史的各國學者中得到肯定,並得以廣泛的利用。與此同時,希望今後繼續進行如同本《史料全輯》的、有益於韓中文化交流並能賦予新鮮活力的、具有學術價值的和有效的合作事業,並且獲得圓滿成功。